

##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 정치적 자치와 문화 정체성

임호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강사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등의 지역 민족주의는 유럽의 중추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스페인에 있어 ‘아킬레스 건’으로 여겨지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한 검토는 현대 스페인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과도 같은 작업이다.

이 글은 스페인의 지역민족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역사적, 비교사회학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유럽 통합,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이민자의 증가, 초국가적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현재의 환경은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하고 있던 과거의 지역주의는 ‘혼종성’, ‘다문화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지구촌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본 논문은 스페인의 지역주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향후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는 지구촌 시대의 지역문화 정체성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I. 서론

스페인이 이질적 지역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바스크 독립 운동 테러단 ET A<sup>1)</sup>의 테러 행위와 까탈루냐(Cataluña) 사람들의 지역 문화 표방 등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스페인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15세기 말에 이미 근대적인 민족 국가를 형성하여 16세기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광대한 영토를 경영하는 등 국가적인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위태롭게 유지되던

1) 바스크어인 Euskadi ta Askatasuna 의 약자로 ‘바스크 땅과 자유’라는 의미이다. 바스크 민족 정당 PNV (Partido Nacional Vasco) 의 온건한 대 프랑코 투쟁에 실망한 급진주의자들이 1959년에 창설하였다. 이들의 강령은 스페인과 프랑스에 걸친 바스크인 거주 지역을 통일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로 완전하게 독립시키는 것이다.

스페인의 통일성은 국가적 쇠퇴기에 접어든 19세기에 이르러 지역주의의 발현과 함께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초 스페인의 대표적인 지성인 오르테가 이 가셋 (Ortega y Gasset, 1921: 41)은 당시 스페인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통일성의 결여를 꼽으며, “오늘날의 스페인은 한 국가라기 보다는 방수 처리된 여러 개의 칸막이 방이다”라고 탄식하기도 하였다.

현재 스페인은 17개의 자치주(Comunidad)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자치의 정도나 지역민들이 갖는 지역 문화 정체성은 서로 상이하다. 특별히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던 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지역은 ‘역사적인 지역’이라 일컬어지며, 스페인어와 상이한 독자적인 언어로 대표되는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도 가장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고 있다. 다른 자치주들도 위의 세 지역 보다는 정도가 덜 하지만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결국 스페인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이질성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스페인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지역주의’라는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자치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실제로 지역민들이 갖는 지역 문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스크, 까탈루냐, 갈리시아 등 지역어를 가진 문화권이 특별한 관심지역으로 부각된다. 우리는 주로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지역들의 민족주의와 지역 주민의 문화 주체성 또는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실 한 국가 내에 존재하며 비슷한 역사적 과정을 거쳤고, 같은 중앙정부를 상대하며 동일한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자치 지역의 민족주의는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와 문화 정체성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유럽 통합, 지구촌화, 인터넷 시대에 이르러 지역 언어의 위축과 함께 지역 문화의 정체성이 어떠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지, 그리고 더욱더 가속화될 지구촌 문화의 조류 속에서 지역 민족주의는 어떠한 운명을 맞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지역주의의 형성 배경

### 1. 역사적, 인종적 독자성

오늘날 스페인에 다양한 지역성이 부각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반도의 모든 지역이 동일한 역사적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즉 근대에

이르러 스페인이 하나의 정치적 통합체를 이루기까지 이베리아 반도는 로마화, 서고트 족의 점령, 아랍의 지배 등의 역정을 거쳤는데 이 때 지형적인 장애물 등으로 인해 몇몇 지역들은 반도의 주류 역사에서 동떨어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동북쪽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던 까탈루냐는 완전한 로마화를 겪었으나 아랍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았고, 또 유럽과 가까운 위치로 인해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갈리시아 지방 역시 로마화를 겪었으나 아랍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반도의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 중앙 역사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었었다. 북쪽 산악지대에 의해 고립되어 있는 바스크 지방은 고립의 정도가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심하여 근대 이전엔 중앙 역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상이한 역사적 과정을 겪은 것은 이들 지역민에게 스페인의 중심 문화와는 섞이기 힘든 독자적 문화 정체성을 심어 주었다.

게다가 갈리시아인들과 바스크인들은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인종적 독자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갈리시아의 경우, 기원전 1000 년 경에 이베리아 반도로 유입된 켈트족이 주로 반도의 서쪽에 자리를 잡았고 그 후 이베로족과의 혼합도 별로 없었으며 로마화나 아랍 문화의 영향도 별로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도 순수한 켈트 인종이 보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에 사는 켈트족의 전통 악기인 퓌피리가 갈리시아에서도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물론 갈리시아의 켈트 인종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sup>2)</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리시아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종적 독자성을 굳게 믿고 있으며 이것이 갈리시아 민족주의의 요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sup>3)</sup> 갈리시아와는 달리 바스크의 인종적 독자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즉 혈청이나 체격이 스페인이나 프랑스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통계 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sup>4)</sup>

2) 예를 들어 존 후퍼 (Hooper, 1996)는 갈리시아의 켈트 인종성은 19세기 갈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는 갈리시아 문화와 아일랜드, 웨일즈, 브레타뉴 지방의 켈트족 문화의 유사점은 모두 대서양의 연안 지역으로서 비와 바람이 많은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3) 예를 들어, 갈리시아의 대도시 중 하나인 비고 (Vigo)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 축구팀의 이름이 셀타 (Celta, 켈트의 스페인어)인데 현재 스페인 1부 리그에 속해 있으며 갈리시아를 대표하는 팀으로 군림하고 있다.

4) 후퍼(Hooper, 1996: 374-376)에 따르면 바스크 인들은 A 형과 Rh- 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유럽인들의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게다가 바스크 인들은 신장이 스페인이나 프랑스인 보다 평균적으로 2-3 Cm 나 더 크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은 더 가는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 2. 언어적 독자성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독자성의 중심에는 그들의 지역 언어가 위치한다. 까탈루냐어나 갈리시아어는 스페인어, 불어, 이탈리아어 등과 마찬가지로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로마가 멸망한 후 라틴어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생성된 언어들이다. 이에 비해 바스크어는 기원이 확실치 않은 언어이며 유럽의 어느 언어와도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바스크어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스크어가 매우 오래된 언어이며 약 3,000년 전 동양으로 부터 이민이 있기 전 바스크인들은 이미 이베리아 반도에 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마도 북쪽의 험준한 산세 덕분에 바스크 인들은 오랜 세월동안 독자적인 언어, 문화와 인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까탈루냐어, 갈리시아어, 바스크어는 15세기 이베리아 반도가 카스티야 왕국에 의해 통일되어 카스티야어가 반도의 공식어, 즉 스페인어가 될 때까지 각 지역의 모든 계층에 의해 사용되었었다.

스페인어가 중남미에까지 퍼져나가 국제어가 된 이후에도 이베리아 반도의 소수언어들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상류층에 의해 사용이 기피되는 등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쓰이지 못했고 공식적인 사용도 매우 제한되었으나 소수언어들은 중, 하층민의 실제 생활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까탈루냐어 같은 경우에는 중, 상류층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교육과 행정에도 사용되는 까탈루냐 지방의 실질적인 공식어였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스페인의 가장 큰 국가적 문제점으로 여기고 이를 말살시키려 했던 프랑코가 지역어 사용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은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역 문화 정체성이 지역 언어를 매개체로 하고 있다는 인식은 너무나도 당연하다.<sup>5)</sup> 이것은 현재 지역 정부들이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언어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말이 다르다’는 것 만큼 한 지역의 문화적 독자성을 확실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게다가 현재 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지방이 모두 이중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 지방 고유어가 스페인어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유어에 결부된 문화 정체성을 설명해 준다. 즉 스페인어가 별문제 없이 통하는 지역에서

5) 웨백, 스코틀랜드, 까탈루냐의 민족주의를 비교 연구한 키팅 (Keating, 1996: 126)은 지역 정체성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보다는 지역 언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점에서 지역언어는 사회계급, 인종, 종교를 초월하는 정치적 수단이라고 말한다.

군이 고유어 사용에 집착한다는 것은 바로 지역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 지역 문화 정체성의 요체를 이룬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하겠다.

### 3. 지역주의 형성의 역사적 배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는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요인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매우 복잡적이고 또 유구한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은 스페인의 짧은 중앙 집권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의 영토가 현재의 것이 되도록 통일된 시점을 16세기 초 카톨릭 왕들에 의해 아랍의 마지막 영토였던 그라나다가 함락되고 (1492년), 나바라 왕국이 합병된 때 (1513년) 로 본다. 스페인 (España)이라는 말도 이때부터 통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18세기 초 부르봉 왕조에 의해 법률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스페인에 병합된 각 왕국들이나 지역들은 중세 이래로 발전해온 자체의 독자적인 법령, 관습, 화폐를 유지하고 있었다 (Manuel Roldan, 1986: 79). 더욱이 18세기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 국가 통합 작업도 19세기에 이르러, 근대적 부르조아 계급의 형성과 함께 암초에 부딪히고 만다. 그러므로 스페인 역사에 있어 강력한 중앙 집권의 전통은 사실상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민족주의 형성에 좋은 토양이 되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역사, 문화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전까지 지역적 독자성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까지 발전되지 못했었다. 이러한 점에서 19세기 후반은 지역 민족주의의 형성에 이정표적인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본격적인 지역 민족주의가 태동한 것은 무엇보다 18세기 유럽을 휩쓴 낭만주의의 영향 때문이라 볼 수 있다.<sup>6)</sup> 18세기 낭만주의는 본질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근원적인 세계를 동경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 한편 낭만주의는 이성적 사고의 산물인 사회, 정치 제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와 연결되고 있었다. 스페인에서 자유주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영향으로 19세기부터 태동하여 20세기 초까지 절대주의와 힘 겨루기를 벌이고 있었는데 자유주의자들 중 보다 진보적인 그룹이 지역 자치적인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까를로스왕을 옹립하려는 세력들 또한 두 차례의 까를리스파 전쟁 (Guerras Carlistas: 1833-1839, 1847-1860)<sup>7)</sup>을 거치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

6) 유럽 낭만주의와 민족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Greenfeld (1993: 322-352)를 참조할 것.

7) 스페인에서는 1713 년부터 딸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금지한 법이 있었다. 그런데 Fernando VII 가 자신의 딸 Isabel 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 이 법을 폐지하려 하자 그의 동생인 Carlos 의 왕위계승을 지지하는 파들이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 일어난 전쟁이 까를리스파 전쟁이다. 스페인어로 까를리스파란 ‘까를로스를 지지

적 목적으로 지역자치주의를 옹호하였다. 이렇게 하여 인종, 문화, 역사적인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 연방들로 이루어진 정치적 집합체로서의 국가의 개념이 지역적 특성을 확산하는 낭만주의 문화론에 힘을 얻어 제기되었다. 1868년과 1875년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지역에서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고 연방 공화정을 지지하는 세력의 힘을 얻어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움직임이 생겨났다. 1873년부터 시행된 제 1 공화정에서 연방적 성격의 공화정이 펼쳐졌는데 좌익 주의자들과 대부분의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19세기 지역 민족주의의 형성 과정에서도 지역적인 차이는 주목할 만 하다. 우선 까탈루냐와 바스크의 민족주의는 산업과 경제의 발달과 함께 바르셀로나, 빌바오 같은 대도시에서 새로운 부르주아 층이 형성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일찍부터 자유주의 사상에 눈을 뜬 이들 도시 중산층에게 있어 왕정으로 돌아가는 스페인의 근대사는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가능하다면 스페인 전체를 현대화 시킬 것을 원했으나 이미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 지역 만이라도 산업화된 현대 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결국 까탈루냐와 바스크의 지역 민족주의는 어느 정도 지역적 자긍심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갈리시아 민족주의의 바닥에는 갈리시아가 이베리아 반도 역사에서 늘 변방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현재에도 갈리시아는 스페인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이다.<sup>8)</sup> 이러한 점에서 까탈루냐나 바스크의 민족주의가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적극적 의미의 민족주의라면 갈리시아의 민족주의는 다소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갈리시아의 민족 정체성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덜 응집적이고 통합적이라는 평가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듯 하다 (Toros Santos, 1995: 346).<sup>9)</sup>

까탈루냐와 갈리시아에서 지역 민족주의가 19세기 초반의 낭만주의적 문예하는 파' 라는 뜻이다.

8) 1995년의 조사에서 갈리시아는 주민 소득면에서 스페인의 평균 주민 소득의 85%를 기록하며 17개 자치주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Hooper, 1996: 405).

9) 1977년부터의 총선에서 지역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민족주의의 강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자치가 자리를 잡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정당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각 자치 지역에서 지역 정당의 총선 득표율 (단위: %)

| 지방 \ 연도 | 1977 | 1979 | 1982 | 1986 | 1989 | 1993 | 1996 | 2000 |
|---------|------|------|------|------|------|------|------|------|
| 바스크     | 39.3 | 50.6 | 54.5 | 54.9 | 59.4 | 48.5 | 46.2 | 40.1 |
| 까탈루냐    | 26.9 | 20.2 | 26.2 | 34.5 | 35.1 | 36.9 | 36.8 | 37.1 |
| 갈리시아    | 6.7  | 11.2 | 4.6  | 11.9 | 9.5  | 13.9 | 13.1 | 19.2 |

자료: Núñez Seixas (1999). 2000년 선거 부분은 <http://www.la-verdad/elecciones> 참조.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신념으로 발전되었는데 비해 바스크의 민족주의는 문화적 발전이나 언어 부흥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정치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스크의 지방 법령(Fuero)이 카를리스파들의 패배와 함께 1876년 폐지된 것에서 비롯된다. 중세에서부터 전통적으로 허용되었던 바스크의 지방 법령은 바스크인들이 조세를 중앙 정부에 직접내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고 군역도 면제시켜 주었으며 중앙의 법과 지역법이 상충될 경우 중앙의 법을 배척할 수 있는 특권을 허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스크 민족주의는 무엇보다 이 법령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공통된 신념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신념은 쉽게 정치화될 수 있었다.

이렇듯 스페인의 지역주의는 역사적, 정치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에 근거하여 매우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스페인이 중앙 집권적 국가가 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스페인이 언어, 정치적으로 통일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지역주의를 스페인의 크나 큰 병폐로 생각하게 되었고 1936년부터 1939년에 걸쳐 일어났던 스페인 내전에서도 지역주의에 대한 시각차는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였었다.

### III. 전환기의 지역 민족주의 재정립과 문제점들

#### 1. 프랑코의 지역주의 억압과 전환기의 양상

현대 스페인 역사에서 전환기란 프랑코의 독재시대가 청산되고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되는 과도기를 일컫는다. 이는 비단 정치적인 변환 뿐 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도 총체적인 변환이 목격되는 시기이며, 민주국가로서의 스페인의 문화 정체성이 정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 민족주의 문제와 결부되어 전환기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프랑코의 집권기간 동안 강력한 중앙 집권화 정책과 함께 지역 민족주의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이 펼쳐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나찌즘이나 파시즘과는 달리 별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지 못했던 프랑코는 카톨릭 종교성 회복, 애국주의를 통한 민족적 자긍심 회복을 표방하며 지역 민족주의를 분리주의로 규정하여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sup>10)</sup> 그는 집권하자마자 제 2 공화정 (1931-1936)이 허락했던 지방 자치제를 폐지하고 지방언어의 공식적인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것은 근대 이래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가 처한 가장 중대한 위기였다. 무력적인

10) 프랑코 측에서 보자면 스페인 내전은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전쟁이었다. 바스크의 카톨릭 신도들이 '무신론자'들이인 공화국파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은 지역주의가 내전의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탄압 하에서 지역주의는 잠수할 수 밖에 없었고 ETA로 대표되는 바스크의 테러리즘만이 지역 민족주의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프랑스의 무자비한 지역주의 탄압이 오히려 ETA와 같은 무력 테러조직을 탄생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반 독재 투쟁과 지역 민족주의 운동이 동일시 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전환기에 이르러 지역 주민들의 자기 정체성 찾기는 언어를 비롯해 문화적 유산을 통한 ‘자기것 찾기’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었다. 지역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움직임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당위적인 것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태란 바로 지역어가 그 지역의 공식어가 되고 주민들이 이 지역어에 기반한 지역 정체성을 공유하며 문화적으로도 스페인의 중심문화와 동등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들 지역이 외에도 프랑스 지배하에서 소외 받아 경제적으로 낙후 되었던 안달루시아, 엑스트레마두라, 카나리아 등에서도 지역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지역 분권주의는 전환기의 거역할 수 없는 대세였던 것이다. 따라서 1978년 헌법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지역문화 부흥운동이 일어나 지역어를 쓰는 방송국, 신문 등이 앞다투어 창간되었고 지역문화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 2. 신 헌법의 모호성

스페인의 전환기에 지역주의가 급신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다. 우선 프랑스 사후 과도 정부가 내세운 지방 분권화 정책이 명백하게 지역자치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78년에 공포된 새 헌법은 지방 자치와 관련하여 매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이 헌법 제1조는 스페인이 “유일하게 주권을 가진 국가 (única nación depositaria de soberanía)”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제2조는 스페인을 “여러 국가 단위들의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 (la indisoluble unidad de las nacionalidades)”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이것은 스페인이 주권(soberanía)을 가진 유일한 국가(Nación)라고 선언하면서도 다른 단위 국가들 (Nacionalidades)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헌법은 제8조에서 스페인 영토를 이루는 17개 지역을 자치주 (Estado de las autonomías)라고 부르며 그 지역들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17개 지역을 일반화하여 지칭했다는 것은 까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등 세 개의 ‘역사적 자치 지역’의 특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sup>11)</sup> 물론 과도 정부가 프랑스

11) 물론 하위 조항에서 이 세 개의 지역에 다른 수준의 자치권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다. 즉 자치지역으로의 빠른 이행 (vía rápida)을 이 세 지역에 허용한 반면 —제151조— 다른 열 네 개의 지역에는 느린 이행 (vía lenta)을 부여했다 —제143조. 세 ‘역사적 자치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을 부여받은 지역은 바스크 (나바라 포함) 지역으로서 1878년의 조약을 인정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납세 의무를 면제 받았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죽음을 전후하여 기승을 떨친 바스크 테러주의자들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

정권에 비해 많은 권리를 지역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확실한 연방주의(federalismo)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 지역국가의 주권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지방 법령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방 정부에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민주 정부가 프랑코 정권과 똑 같은 억압을 가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Núñez Seixas, 1999: 132). 이러한 시각은 특별히 바스크 지방에서 두드러졌는데 지역 보수 정당인 PNV 마저도 헌법승인을 위한 국민투표에 불참을 표명하여 결과적으로 55.5%의 바스크인들이 선거에 불참하였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23.8%가 반대표를 던졌다(Núñez Seixas 145).<sup>12)</sup> 새 헌법에 대한 바스크인들의 불만은 이내 빈번해진 ETA의 테러 행위로 표출되었다.

### 3. 지역주의자 내부의 혼선

또 다른 문제는 지역 민족주의의 유지 방법이나 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민족주의자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중앙 정부와 정치적 협상을 벌여야 하는 지역 정부, 지역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의견 통일이 필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조차도 정치 노선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서로 혼선을 빚었다. 즉 현실적이고 온건한 집단은 스페인에 속한 하나의 자치구역을 갖는데 만족했고 지역 언어의 부활 정책에도 별로 지지를 보내지 않은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완전한 독립을 원했으며 더욱이 급진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해 테러 행위마저도 정당화하였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통일되지 못하고 그 정책과 강령에 따라 난립할 수 밖에 없어 힘의 분산을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은 바스크 지방인데 이곳은 보수적 지역정당인 PNV 외에 HB (Herri Batasuna), EE (Euskadiko Ezkerra), EA (Eusko Alkartasuna) 등 진보정당들이 난립하여 민족주의를 분열시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까탈루냐와 갈리시아에 서와는 달리 이들 진보 정당들은 총선에서 보수 정당과 거의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바스크 지방 내부에서 민족주의의 진로에 대해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12) 이에 비해 까탈루냐인들은 1978년 헌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즉 67.7%가 투표에 참여하여 90.4%가 찬성표를 던졌다(Núñez Seixas, 1999: 87). 물론 이것은 바스크의 PNV와는 달리 까탈루냐의 CiU 정당이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법 자체가 가진 해석의 모호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지역정당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정치적 협상이 벌어져야 했다.

#### 4. 언어 부흥의 한계

전환기의 지역주의 부활에 있어 또 다른 장애요인은 그 동안 지역어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 소생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 언어들은 프랑코에 의해 공식적인 사용을 금지 당했었고 또 프랑코 통치 기간동안 외부로 부터 이민이 유입되어 내전 전에 비해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 있었다. 예를 들어, 까탈루냐어는 주민의 50% 정도 밖에는 쓸 줄을 몰랐었고 바스크어는 25% 이하의 주민들 밖에 말할 줄을 몰랐었다. 이것은 특별히 바스크에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까탈루냐어나 갈리시아어에 비해 바스크어는 습득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까탈루냐어나 갈리시아어는 스페인어를 태생어로 쓰는 사람들이 쉽게 습득하여 쓸 수 있는 반면 바스크어는 태생어로 익히지 않으면 후천적으로 습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환기에 바스크 정부가 언어를 부흥시키려 해도 갑자기 언어 사용이 활성화 될 수는 없었다. 1980년대 들어 까탈루냐어와 갈리시아어가 행정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식어로 채택되는 등 사회적 지위를 높여왔지만 바스크어는 매우 더딘 회복을 보여줄 뿐이었다 (Núñez Seixas 1999: 138). 1980년대의 부흥 운동을 거쳐 지역어가 완전히 소생한 1990년대의 상황을 보더라도 바스크어는 여전히 다수의 언어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표1>각 지역민들의 지역어 구사 수준, 1997년 (단위 %)

| 지 역 어   |            | 까 딸 란 어 |       |       | 갈리시아어 | 바 스 크 어 |     |
|---------|------------|---------|-------|-------|-------|---------|-----|
| 자 치 주   |            | 까탈루냐    | 발레아레스 | 발렌시아주 | 갈리시아  | 나바라     | 바스크 |
| 구 사 수 준 | 알아 들을 수 있다 | 95      | 91    | 88    | 88    | 23      | 43  |
|         | 말할 수 있다    | 80      | 62    | 60    | 77    | 16      | 30  |
|         | 읽을 수 있다    | 84      | 66    | 54    | 65    | 16      | 33  |
|         | 쓸 수 있다     | 53      | 28    | 23    | 35    | 10      | 25  |

자료: *La Vanguardia*, 1997년11월 30일자.

#### 5. 국가 민족주의의 형성

또 다른 장애 요인은 전환기에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스페인 민족주의가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민족주의는 프랑코파의 극우적 애국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전환기를 거쳐 스페인이 완전한 민주국가로의 서유럽의 중심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면서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갖게 된 국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물론 이러한 국가 민족주의의 형성에는 1982년 사회노동당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PSOE)이 집권하면서 맞게 된 경제

호황, 1985년 유럽 공동체 가입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대 이후 일종의 ‘유럽 콤플렉스’를 앓아 왔던 스페인인들은 유럽 공동체 가입을 크게 갈망하고 있었다. 유럽이 되는 것이야말로 당시 스페인이 안고 있던 모든 국가적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식되어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 계급,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국민들에 의해 유럽 통합에의 가입이 지지되었다 (Pereira Castañares 1998: 981-82).<sup>13)</sup> 결국 1980년대의 완전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착실한 경제 발전, 유럽 통합체 가입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져 새로운 스페인 민족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민족주의가 지역 민족주의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른 연방 국가와는 달리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는 전통적으로 국가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것, 즉 ‘스페인적인 것’에 한데 섞이기를 거부하며 발전해 온 터라 까탈루냐나 바스크, 갈리시아의 주민들이 이중적인 민족주의를 가질만한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sup>14)</sup> 그렇다면 지역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 민족주의와 경쟁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후자의 신장은 그만큼 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6. 전환기의 결론: 지방 자치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환기를 통하여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가 급신장한 것은 사실이다. 스페인의 국가 형태에 대한 다음의 설문조사는 전환기를 거치면서 스페인 국민의 대다수가 중앙 집권제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 분권제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3) 유일한 예외라고 한다면 유럽통합으로 생업에 타격을 입게될 과일 재배농, 유가공업자, 어업 종사자들이었다. 갈리시아에는 특히 이러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갈리시아인들이 유럽통합에 소극적이거나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누네스(Núñez Seixas 1999: 136)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에 갈리시아 지역정당이 총선에서 비약적인 득표 증가율을 보여준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4) 지역 민족주의와 국가 민족주의가 배타적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있다. 그것은 1998년 유럽컵 축구 결승전에서 마드리드의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과 이탈리아의 유벤투스팀이 대전했을 때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유벤투스팀이 이기기를 바랐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축구팀간의 라이벌 의식에서 비롯된 단순히 스포츠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 사회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lt;표 2&gt; 스페인의 국가 조직에 대한 선호도 변화 1979-1990 (단위: %)

| 국가형태<br>자치주 | 중앙집권제 |      | 지방자치제 |      | 연방제  |      | 지역의 독립 |      |
|-------------|-------|------|-------|------|------|------|--------|------|
|             | 1979  | 1990 | 1979  | 1990 | 1979 | 1990 | 1979   | 1990 |
| 까탈루냐        | 12    | 3    | 60    | 55   | 16   | 18   | 6      | 8    |
| 바스크         | 10    | 5    | 38    | 56   | 15   | 12   | 30     | 20   |
| 갈리시아        | 29    | 6    | 51    | 79   | 14   | 11   | 4      | 2    |
| 까나리아        | 45    | 12   | 48    | 77   | 4    | 5    | 3      | 7    |
| 스페인 전체      | 29    | 13   | 50    | 69   | 9    | 8    | 6      | 8    |

자료: M. García Ferrando et al. (1994: 182)

위의 표에서 보듯 ‘역사적 자치지역’에서는 물론이거와 스페인 전체로 볼 때도 지방자치제 이상의 분권적인 국가 형태가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코가 죽은 직후에는 지역주의의 진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전환기를 거치면서 스페인이 지방 자치 국가가 되는 것으로 국론이 모아진 것이다. 이제 방법과 과정의 문제가 남았을 뿐 갈 길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 IV. 새로운 국면: 최근의 상황

전환기를 통해 부활한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는 작금에 이르러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이민자의 증가, 유럽 통합,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 지구촌 문화의 확산 등으로 야기된 세계의 지구촌화 현상이 지역 민족주의에 있어 과거의 전투적, 배타적 방향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는 국가 내적인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전체의 질서 속에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 국면에 봉착한 것이다.

##### 1. 이민과 지역주의

유럽 통합은 유럽 공동체 안에서 거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유럽인들이 스페인 영토 내에 상주하고 있다. 게다가 1980년대 이래 스페인에는 중남미, 아시아, 북아프리카로부터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많은 수의 이민이 유입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안달루시아, 까탈루냐, 갈리시아, 바스크 등 지역주의가 발전된 곳에 다른 곳 보다 인구증가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1970년에서 1996년 사이의 인구 증가율에서 17개 자치주 중 안달루시아가 1위 (18.2%), 까탈루냐가 2위 (15.4%), 갈리시아가 5위 (6.9%), 바스크가 7위 (5.3%)를 기록했다 (*El País Anuario* 1998: 387). 이러한 증가율은 물론 자연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외지인들이 —스페인이건 외국인이건—

이들 지역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성에 결부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물론 이민자의 증가와 지역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바스크 지역과 까탈루냐 지방이 산업 팽창과 더불어 많은 수의 이민자를 받았던 1950, 60 년대에 이미 한차례 논의된 바 있다. 이때 바스크와 까탈루냐의 민족주의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이민이 지역 민족주의를 희석시킬 것을 우려했었다. 이 때 까탈루냐 민족운동을 이끌고 있던 조르디 푸졸 (Jordi Pujol)은 까탈루냐에 유입되는 이민이 “집단적이고 친밀한 단합을 깨뜨리고 공동체적 의식을 파괴하기 때문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 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가스띠야가 까탈루냐를 파괴할 목적으로 획책한 것” 이라고 해석했다 (Miguel, 1995: 258 재인용). 바스크의 한 민족주의자는, 집단 이민이야 말로 “바스크인들을 집단 학살하려는 스페인의 간교한 술책”이라고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Miguel 1995: 257 재인용). 물론 대량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이 배타적인 지역 민족주의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까탈루냐와 바스크의 경제 부흥이 이민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했던 것도 사실인 만큼 이민자들의 유입은 산업 발전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기도 하다.

1950, 60년대와 비교해서 1980, 90년대의 더 큰 문제는 많은 이민자들이 스페인어를 태생어로 배우지 않은 외국 출신들이라는 것이다. 즉 1950, 60년대 까탈루냐, 바스크 지방에 유입된 이민은 스페인 내의 다른 지방 사람들로서 스페인어가 태생어 인지라 비록 소수의 숫자이긴 했지만 지역어를 배워서 그 지역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듯 1980 년대에 유입된 이민은 주로 외국인들로 유럽, 아프리카 등 스페인어를 쓰지 않는 국가 출신들이다.

<표 3> 스페인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단위: 명 (%))

| 출신지역     | 1980            | 1993            |
|----------|-----------------|-----------------|
| EC 국가들   | 108,020 (58.9)  | 210,226 (48.9)  |
| 다른 유럽국가들 | 11,549 ( 6.3)   | 27,326 ( 6.4)   |
| 북미       | 12,447 ( 6.8)   | 19,533 ( 4.5)   |
| 중남미      | 34,041 (18.6)   | 83,785 (19.5)   |
| 아프리카     | 4,106 ( 2.2)    | 79,422 (18.5)   |
| 아시아      | 11,719 ( 6.4)   | 34,612 ( 8.1)   |
| 계        | 183,422 (100.0) | 429,866 (100.0) |

자료: Indicadores Sociales de España (Madrid: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1997) 42에서 재구성.

위 표의 숫자는 단기 관광객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결국 1980, 90년대 자치주에서 늘어난 인구는 대부분 외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인구가 지역 민족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아야 할 텐데 이들은 내국인 이민자 보다도 더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와해 시키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이 그 지역에서만 소통되는 지역어보다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에서도 의사 소통에 불편이 없는 스페인어를 배우려 한다는 점이다. 즉 지역의 이중 언어 시스템은 스페인에 살기 위해 언어를 배우려 하는 외국인들에게 별 고민없이 스페인어를 선택하게 만든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지역어의 사용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마르 몰리네로(Mar-Molinero 1995: 341)의 지적대로 만일 스페인이 1977년 유럽 통합체 창설시의 준수사항, 즉 이민자들의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준수하려 한다면 현재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스페인어와 소수어들 사이의 균형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 2. 지구촌화와 지역주의

인터넷 시대의 개막과 그로 인한 정보의 세계화 또한 지역 민족주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나 정보가 세계화되면 될수록 영어를 비롯한 국제어의 중요성은 증폭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반해 지역어는 그 소통의 제약성 때문에 국제적 사용에서 더욱 소외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어가 국제어인 스페인어와 경쟁하기 위해서 또 지방 자치 정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중 언어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도 심각한 시련인 것은 틀림없다. 결국 이러한 지구촌화로 야기된 현대의 세계적인 추세는 세계성(globalism)이 각광을 받고 민족주의—국가든 지역이든—가 퇴조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촌화가 지역 민족주의에 반드시 불리한 상황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인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개념은 기존의 국가 중심의 권력 구조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각 지역이 국가라는 상위 단위의 권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은 유럽 통합으로 빚어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즉 유럽연합 내에서 정치 권력 구조의 변화는 ‘지역들이 뭉친 유럽(Europe of regions)’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초 국가적인 통합 유럽의 권력의 핵심과 각 지역 정부들이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Mar-Molinero, 1995: 341). 실제로 카탈루냐의 CiU (Convergència i Unió) 같은 지역 정당들은 유럽 공동체 내에서 각 지역의 독립적인 주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주요 강령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 유럽 공동체와의 관련 사항들을 의결하기

위해 지역 정부의 대표들과 중앙 정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회(Conferencia para Asuntos Relacionados con las Comunidades Europeas)가 설치되었는데 이 협의회는 1994년, 17개의 자치주가 각각 스페인을 대표하여 유럽 공동체에 참여할 것을 의결하였다. 즉 지역정부가 유럽 공동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유럽 공동체 역시 국가들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넘어 각 국가 내에 존재하는 소수 민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Maastricht 조약에 의해 지역 위원회(Comité de las Regiones)를 설치하여 주요한 현안에 있어 지역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21명의 스페인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그 중 17명이 각 자치주의 대표들이다. 또한 유럽 통합체는 유럽 소수언어국(European Bureau for Lesser Languages)과 같은 기구를 두어 통합체 내의 지역어를 보호하고 있다. 이 기구는 유럽의 소수언어를 연구, 교육 하는데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역어를 사용하는 집단끼리 관계를 맺는 것도 도와주고 있다.

### 3. 우파정당의 집권과 지역주의

지구촌화와 더불어 1990년대의 스페인 지역 민족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대한 요인은 스페인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1996년부터 보수 우익정당 민중당(Partido Popular: PP)이 집권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세계적인 추세, 적어도 서유럽의 현대적 추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현상인데 이로써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PP는 전환기에 프랑코 주의자들이 창설했던 AP(Alianza Popular)의 후신으로 PSOE 정권 하에서 굳어진 지방 체제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15세기 이후 형성된 하나의 군주 국가로서의 스페인의 개념을 정립하려 하였다(Núñez Seixas, 1999: 149). 1996년 총선에서 PP의 지도자였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José María Aznar는 균형 재정, 부패척결과 함께 1968년 창설이후 무려 800명을 암살한 ETA의 테러행위를 근절 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분리주의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지역민들에게도 지역주의를 억압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취졌고 프랑코파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PP의 승리는 곧 지역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겨졌다(CNN, 1996. 2. 29). 민중당 집권 직후 더욱 잦아진 ETA의 테러는 이러한 불안감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중당 정부는 ETA 테러에 대해서는 바스크의 경찰 병력을 증강하는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강경한 입장이지만 지역자치에 대해서는 사회노동당 정부보다도 더 관용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 자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조직을 개혁하고 더 많은 권한을 지방 정부에 양도하였으며, 유럽 공동체와의 문제를 다루는 협의회를 법적인 기구로 만드는 등 지역정부가 유럽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특히 사회당 정부하에서 15%였던 지방 정

부의 개인 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이 1996년에는 30%로 확대되었다. 이 법안은 지역 정부가 사회노동당에 의해 구성되어 있던 안달루시아 (Andalucía), 까스띠야-라만차 (Castilla-La Mancha) 그리고 엑스뜨레마두라 (Extremadura) 의 반대를 제외하곤 다른 모든 정부의 지지를 받아 시행되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민중당의 보수적 이데올로기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민중당 집권 이전의 지역주의자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스나르의 지방자치 정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1996년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아스나르 정권은 집권을 위해 지역정당인 CiU, CC (Coalición Canaria)와 연합 정부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들 정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입장에 처해 있었다. 게다가 균형재정을 통한 건실한 성장을 경제 정책의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아스나르 정부는 중앙 정부의 조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 정부에 더 큰 권한을 양도해 준 것이기도 했다. 결국 실용주의적 노선을 표방하는 민중당은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 지역주의라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 3월 12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민중당이 예상을 뒤엎고 44.5% 의 지지율로 350 의석 중 과반을 상회하는 183석을 차지한 것은 지역주의에 관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sup>15)</sup> 민중당의 대승은 민중당이 더 이상 연립 정부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그 동안 민중당이 지역 정당과 연합하며 추진해 왔던 지역주의에 관한 정책이 민중당의 진정한 의지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협상의 불가피한 결과였는지가 가려지게 된 것이다. 민중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은 주로 집권 4년 동안의 건실한 경제 성장과 급격한 실업률 감소(23% → 15%)로 분석되지만 까탈루냐와 바스크 그리고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4년 전 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는 것은<sup>16)</sup> 민중당의 지역주의 정책이 지역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스나르는 선거 후 지역주의자들을 의식한 듯 “복수 스페인 (España plural)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화합, 결속, 대화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천명했다 (*El Periódico On Line*, 2000. 3. 16).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첫 국회 연설에서부터 ETA의 테러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17개 자치주의 법률과 재

15) 1996년 총선에서는 민중당 (PP)은 39.2 % 의 전체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350석 중 156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한편 제 1 야당인 사회 노동당 (PSOE) 은 1996년에 38%의 득표율에 141 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 총선에서 34.1%의 지지로 125 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16) 그렇다고 이 지역에서 지역 정당들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까탈루냐의 CiU 는 16석에서 15 석으로 의석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고 바스크의 PNV는 5석에서 7석으로, 안달루시아의 PA (Partido Andaulucista)는 의석이 없다가 한 석을 차지하는 등 오히려 1996년 선거에서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

정에 대한 준비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결국 아스나르는 CiU 와 CC 와의 연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부를 구성했지만 지난 번 임기 때와는 달리 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은 상황아래서 벌써부터 마찰음을 유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민중당 정부가 지역민족주의를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안정 속에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아스나르 정부는 1996년 집권 이래 유럽 공동체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고 또 지역주의가 발달한 지역의 지역민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까탈루냐 출신 작가 빠미에스(Sergi Pamiés)가 지적하듯 이러한 국가적 변영이 종래에는 스페인내의 지역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빠미에스는 벌써부터 스페인 사람들이 과거를 잊고 있다고 말한다(*Newsweek*, 아시아판 2000년 5월 8일). 스페인의 지역민족주의가 상당 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예상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민중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용주의 경제노선은 결국 지역민족주의를 와해시키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정책일지도 모른다.

## V. 결론: 다양성 시대의 새로운 지역 문화 정체성

수많은 논란 속에 지방 자치로 정책의 가닥이 잡힌 전환기와 지구촌 시대 논리의 지배를 받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스페인의 지역 민족주의는 이제 완전히 정착된 느낌이다. 국민 대다수가 유일한 주권국가로서의 스페인을 분해시킬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지역분권체제의 강화를 원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중적인 국가 또는 문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표 4>는 지역주의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다수의 지역민들이 지역 정체성과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인 공동체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4>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 1986 - 1994 (단위:%)

| 자치주                      | 안달루시아 |      | 아라곤  |      | 까탈루냐 |      | 갈리시아 |      | 바스크  |      | 발렌시아 |      |
|--------------------------|-------|------|------|------|------|------|------|------|------|------|------|------|
| 정체성: 나는                  | 1986  | 1994 | 1986 | 1994 | 1986 | 1994 | 1986 | 1994 | 1986 | 1994 | 1986 | 1994 |
| 오로지 * 사람이다.              | 2     | 7    | 2    | 4    | 11   | 11   | 6    | 12   | 28   | 30   |      | 3    |
| 스페인 사람이라기 보다 * 사람이다.     | 18    | 17   | 11   | 14   | 19   | 21   | 27   | 24   | 20   | 18   | 9    | 6    |
| 스페인 사람이기도 하고 * 사람이기도 하다. | 63    | 60   | 66   | 47   | 48   | 42   | 52   | 54   | 36   | 30   | 53   | 52   |
| * 사람이라기 보다 스페인 사람이다.     | 7     | 7    | 5    | 6    | 8    | 15   | 7    | 5    | 4    | 6    | 18   | 10   |
| 오로지 스페인 사람이다.            | 7     | 9    | 13   | 28   | 11   | 11   | 5    | 4    | 10   | 13   | 17   | 28   |
| 잘 모르겠다.                  | 3     | 0    | 3    | 2    | 3    | 1    | 3    | 1    | 2    | 3    | 2    | 1    |

주: \* 안달루시아, 아라곤, 까탈루냐, 갈리시아, 바스크, 발렌시아.

자료: Moreno. 1997. p.129.

매우 작은 비율의 사람들만이 지역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대다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다중의 지역 정체성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는 21세기의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이제까지의 지역 민족주의는 중앙과 변방을 가르며, 우리와 남을 가르치고, 안과 밖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개념에 근거해 있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 사회를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논리는 이러한 구조주의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해체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자본과 생산에 운동성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에 대해 자본이 최대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생산기지가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는 초국가적 기업들을 양산했고 따라서 세계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산업의 범세계화는 균질성의 결합으로서의 국가의 개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프랑코는 ‘스페인은 다르다’를 외치며 스페인을 다른 유럽 국가들과 구별했지만 이제 스페인은 유럽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인도 동질적 요소들의 결합이 아니다. 스페인은 이제 문화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분리된 자치지역들의 연합일 뿐이다. 결국 포스트 모던 이론은 ‘동질성이 곧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해체했다. 스페인은 더 이상 스페인적인 것과 스페인적이지 않은 것 사이의 확실한 구분이 불가능한 다원적인 문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집단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구촌 문화의 세계 속에서 개인 역시 더 이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는다. 즉 지역 문화 정체성이 결코 개인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정체성을 변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반대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체성은 ‘잡종’들의 혼합이며 언제나 새롭게 생산되고 모습을 바꾸는 생물체로 볼 수 있다. 지구촌 환경에 직면하여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를 고집하는 것이 아닌 개방적이고 유연한 민족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문화란 가변적인 것이므로 스페인의 지역주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중 언어’, ‘혼종성’ 으로 이해하여 다원주의 문화, 다언어 체제에 정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Carr, Raymond. 1998. *España: de la Restauración a la democracia, 1875-1980*. Barcelona: Ariel.
- Elorza, Antonio. 1995. "Some Perspectives on the Nation-State and Autonomies in Spain," pp. 332-336. in *Spanish Cultural Studies*, edited by Helen Graham and Jo Labanyi.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ernández, Josep-Anton. 1995. "Becoming Normal: Cultural Production and Cultural Policy in Catalonia," in *Spanish Cultural Studies*.
- Fusi, Juan Pablo. 1996. "España, nacionalidades, regiones." in *Entre dos siglos: reflexiones sobre la democracia española*, edited by Javier Jusell. Madrid: Alianza.
- García Ferrando, M. et al. 1994. *La conciencia nacional y regional de la España de las autonomías*. Madrid: CIS,
- Greenfeld, Liah. 1993.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oper, John. 1996. *Los nuevos españoles*, translated by Ana Poljak. Madrid: Vergara.
- Inman Fox, E. 1999. "Spain as Castile: Nationalism and national identity," pp. 21-36 in *Modern Spanish Culture*, edited by David T. 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os (INE). 1997. *Indicadores Sociales de España*. Madrid: INE.
- Jiménez-Blanco, Antonio. 1996. "El estado del Estado de las autonomías," pp. 317-332 in *Entre dos siglos: reflexiones sobre la democracia española*.
- Keating, Michael. 1996. *Nations against the State: The New Politics of Nationalism in Quebec, Catalonia, and Scotl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 Lasagabaster, Jesús María. "The Promotion of Cultural Production in Basque." pp. 351-355 in *Spanish Cultural Studies*.

- Manuel Roldan, José. 1986. *Historia de España*. Madrid: Edi-6.
- Mar-Molinero, Clare. 1995. "The Politics of Language: Spain's Minority Language". *Spanish Cultural Studies*.
- Miguel, Amando de. 1995. *Los españoles: Sociología de la vida cotidiana*. Madrid: Temas de hoy.
- Moreno, Luis. 1997. *La federalización de España*. Madrid: Siglo XXI.
- Núñez Seixas, Xosé Manoel. 1999. *Los nacionalismos en la España contemporánea (siglos XIX y XX)*. Barcelona: Hipótesis.
- Ortega y Gasset, José. 1921. *España invertebrada*. Madrid: Revista de Occidente.
- Pereira Castañares, Juan Carlos and Pedro A. Martínez Lillo. "Política exterior, 1976-1997," pp. 720-755, *Historia contemporánea de España: siglo XX*. edited by Javier Paredes. Barcelona: Ariel.
- Toro Santos, Xelís de. "Negotiating Galician Cultural Identity," pp. 346-351, in *Spanish Cultural Studies*.
- Tusell, Javier. "¿Hay un problema catalán? ¿Existe el problema de España?," pp. 353-378, in *Entre dos siglos: reflexiones sobre la democracia española*.
- Unzueta, Patxo. "Sociedad vasca y política nacionalista en vísperas del 2000," pp. 379-408, in *Entre dos siglos: reflexiones sobre la democracia española*.
- "Aznar: 'Hemos pasado página,'" *El Periódico On Line*. 2000. 3. 16.
- "Basques fear losing their culture," CNN. 1996. 2. 29.
- "The New Faces of Spain," *Newsweek*. 아시아판, 2000. 5. 8.
- "Normalizar la lengua por ley," *La Vanguardia*, 1997. 11. 30
- "Spanish Congress elects Aznar prime minister," CNN. 1996. 5. 4.

## Regional Nationalism in Spain: Political Autonomy and Cultural Identity

**Ho-Joon Yim**

*Department of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 SNU*

**Doo-Seung Hong**

*Department of Sociology, SNU*

Regional nationalism has been deeply embedded in the tradition of Spain. The ethnic,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prevalent in the regions of Catalonia, Vasque and Galicia still persist. The radical regionalism in the beginning of the 20<sup>th</sup> century gave rise to the Spanish civil war along with the impact of anarchism, labor and peasant movements. During the Franco's era, regionalism was oppressed by the strong, centralized government. And any behaviors and actions to pursue regional identity including speaking regional languages were severely prohibited.

After Franco's death, resurrection of regionalism became a hot social issue. In the constitution newly established in 1977, Spain chose to become a union of the seventeen states separated both politically and culturally. Although the majority of Spanish people support "plural Spain," the restoration of regionalism was no simple task because throughout the Franco's era, regionalism had been already debilitated and even among the regionalists there was no agreement on the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More recently, European integration, increased immigration, expansion of internet usage, and global capitalism have contributed to place Spanish regionalism in a new phase. As the national identity becomes blurred with the emergence of the global community, it appears to be more difficult to pursue one's regional identity. Although Franco strenuously claimed that "Spain is different" to distinguish his country from other European countries, contemporary Spain seems to merge to the European community. The individual seeking his/her identity does not rely on the regional community any more, and thus, the identity of regional culture no longer represents the individual's identity.

This paper suggests that in this global world the best way to retain the identity of a regional culture is to maintain an open-door policy and to keep a flexible nationalism rather than to opt for exclusive regional isolation or seclusion. The global culture is always varying and as such the Spanish regionalism needs to be readjusted to the ever changing global environment.

임호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강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46-1. Tel: 880-5850.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46-1. Tel: 880-6414.